

순창장류축제 인기리 종료

세계소스박람회 동시 진행... 66가지 프로그램 가족단위 관광객 사로잡아

제12회 순창장류축제가 22일 성황리에 마쳤다. 경연, 체험, 문화, 전시 판매 등 8개 분야에서 66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히 이번 장류축제는 세계소스박람회와 동시 진행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층 강화됐다. 소스박람회 공식 개막은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올해 축제중 주목 받는 프로그램은 2017인분 떡볶이 오픈 파티였다. 고추장 민속마을 중앙 거리 200m 정도에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떡

볶이를 만드는 오픈 파티형 행사다. 무료 행사로 21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또 순창고추장을 매개로 한 임금님 고추장 진상행렬과, 고추장 떡볶이 거리 조성,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마을로 가는 여행 등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 운영해 장류를 소재로 한 컬러 콘텐츠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꼬치와 떠나는 소고기행, 반짝반짝 메주만들기 등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또 EDM 야간 서치쇼, 장류마을 좀비야 놀자, 밤 오케스트라 공연 등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제2회 순창세계소스박람회는 고추장 민속마을 발효소스마을 일원에서 진

행했다. 세계 150여개 기업이 각 나라의 1000여개의 독특한 소스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 산업관, 마케팅관, 전시관 3개관을 개관하고 13개국 60개사가 참여해 94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북을 부르는 세계음식 소스전, 6차 산업전, 장수밥상, R&D 전시전 등 전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미디어아트존도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고추장요리경연대회 출품작을 활용한 푸드트럭을 운영했고 수제맥주 페스티벌도 운영해 먹거리가 풍성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전통시장 삼중고 정면돌파 나서

'고객 위문잔치' 행사 마련 관촌시장 옛명성 되찾기 노력 볼거리·즐길거리 다채

임실군이 경기불황과 대형마트와의 경쟁, 전자상거래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문화행사를 마련, 고객몰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일 관촌시장에서 '전통시장 고객 위문잔치' 행사를 열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문화행사는 초대가수 공연과 함께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으며, 시장방문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경품나눔 행사를 열어 즐거움을 선사했다. 고객들은 노래자랑 등 공연을 즐기며 훈훈한 인심이 깃든 전통시장에서 행복한 장보기 시간을 가졌고, 경품까지 받아가는 일석산초의 기쁨을 누렸다. 관촌시장은 임실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새롭게 개장한 이후 7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임실읍내 등 대형마트가 입점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임실군이 관촌시장의 옛명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차츰 활성화될 조



임실군은 지난 20일 관촌시장에서 '전통시장 고객 위문잔치' 행사를 열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군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유관기관·행정이 추진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노점상 시장유입 조치와 노상 상행위 근절, 군내버스 시장경유조치 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등을 열어가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특히 지역 전통시장의 주요고객층을 기존 지역주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며, 고객중심형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날 행사장을 찾은 심 군수는 "오늘의 문화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들이 찾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시책추진 등 행정차원의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준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지만, 최상의 상품과 친절환 서비스,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로 고객중심형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서진여고(교장 이호재)가 지난 1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진 사이언스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차산업 이끌 새싹 키운다

남원서진여고 사이언스데이 개최

남원시 서진여고(교장 이호재)가 지난 1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진 사이언스데이'를 대강당에서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서진사이언스데이는 해마다 개최하는 자체 과학경진대회로써 금년에는 특별히 국가정책인 4차 산업 인재육성에 맞춰 항공드론 부문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됐다. 이 학교 서한걸 과학주임교사가 한국창의재단에서 시행하는 고등부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시행 주제인 항공소년단 전북연맹장과 서진항공드론동아리가 함께 진행

했다. 프로그램은 항공이론, 드론 조종 체험과 함께 특별히 항공드론명사와의 만남 시간에는 '4차 산업이 요구하는 미래인재와 직업'에 대한 특강을 비롯한 항공소년단 연맹장이 강의했다. 서한걸 과학주임은 "창의재단에서 이번에 대학과 직업선택을 해야 하는 가장 절실한 시기인 고등부에 이처럼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시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주민참여 제안사업 26건 선정

안길정비·도로포장사업 등 시민위원회 공식일정 마무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위원장 이정환)의 활동이 지난 20일 대표회의를 끝으로 2017년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남원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계시에 공고하여 85건/51억7400만원의 제안사업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각 분과위원회별(4개분과)로 현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예산변경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 분과는 안길정비사업 등 26건, 교육복지환경 분과는 노인복지시설사업 등 10건, 농림 분과는 농로포장 등 31건, 건설교통 분과는 하천정비사업 등 18건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지난 17일에는 시청회의실에서 시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위원회별 현장보고회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리를 가졌다. 20일 시민위원회 대표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장과 집행부와 분과별로 선정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확정해 최종 의견서를 작성해 11월 20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민위원회 대표회의 이후 위원회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서는 예산변경 현황과 함께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예산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일정돌입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군정질문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에게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각 실과원소장을 출석시켜 올 한해 군 역점사업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 그리고 군정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과 답변을 실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장류포럼, 학계 관심집중

제12회 순창장류축제 행사에서 진행된 장류포럼이 학계와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미래의 건강 먹거리 청국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장류포럼은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심포지엄의 세부 주제로는 텍사스대학 장우석 교수가 4차산업과 관련하여 장 건강에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 원광대학교 박성훈 교수가 대사성 질환 등과 관련하여 '순창청국장의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번 박담회는 청국장에 대해 과학적인 우수성과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순창청국장만이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조상땅 760필지 찾아냈다

임실군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오후 235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본인 명의의 땅 182필지, 조상 명의의 땅 483필지, 안심상속 95필지로 총 760필지 면적 814,723㎡의 땅을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임실군 관촌면에 거주하는 B씨는 군청 민원실에 비치한 '조상 땅 찾기' 홍보용 배너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오래 전 돌아간 부친 명의의 땅 8필지 3,662㎡를 발견하게 되어 행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상 땅을 찾으려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